



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일본 리츠메이칸 APU 문예 카셀 학장 인터뷰
“설립 10년만에 국제화로 명문만열에
올려놓은 그의 리더십과 성공비결을 듣는다”

동대신문

금요일엔

성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
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 위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 스티븐 리파타 811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78호 2009년 (불기 2553년) 8월 24일 월요일

Cover Story 동대신문 판형 변경에 부처

동국인을 위한 매체로 거듭날 것

대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판형 변경 ... 국한문 병기도 함께

동대신문이 지령(紙齡) 1478호 (2009년 8월 24일자)부터 기존 판형이었던 대판(391mm×545mm)에서 베를리너판(323mm×470mm)으로 변경됐다. 판형 변경을 통해 동대신문은 베를리너판의 장점인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펼쳐서 한눈에 기사를 볼 수 있도록 변화했다.

베를리너판 변형에 맞춰 동대신문은 대학생들의 한자 능력을 고취(高趣)시키기 위해 우리말과 한자병기(併記)를 실시(實施)한다.

또한 각각 대판과 잡지 형식으로 발행되던 대학원신문과 동국Post가 2009학년도 2학기에 맞춰 베를리너판 신문으로 동대신문과 발행 일자를 맞춰 함께 발행(發行)된다.

가독성 높이고 휴대 간편

세계적으로 신문 사이즈의 유형은 약 60여 가지를 상회(上廻)한다. 이는 각 신문사마다 그들의 얼굴을 만들고 정체성(正體性)을 갖기

위함이다. 세계 신문업계는 그 중 수 많은 신문 사이즈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조선, 한겨레 등 대다수의 일간지 크기를 대판(391mm×545mm), 새 동대신문과 중앙일보의 크기를 베를리너판(323mm×470mm), 메트로 등 무료신문의 크기를 타블로이드판(272mm×391mm)이라 부른다.

베를리너판의 장점은 인쇄공학적 인 크기와 편리함에 있다. 우선 인쇄공학적 측면에서 베를리너판은 대판과 콤팩트판에 비해 가장 편한 사이즈이다. 베를리너판은 펼치더라도 아시아의 분산이 적어 결과적으로 정보를 더 빨리 머릿속에 전달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동이 많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반영(反映)하는 데도 베를리너판이 뛰어나다. 비행기·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신문을 읽을 때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 크기만 보면 지하철 무료 신문들의 판형인

콤팩트판이 더 작지만 충분한 양의 정보(情報)를 담고, 깊이 있는 뉴스를 다루기에는 한계(限界)가 있다.

국한문병기...한자 활용 높일 계기

동대신문이 베를리너 판으로 변경하면서 새롭게 변화한 것은 우리말과 한문의 병기(併記)다. 국한문병기(併記)는 한글전용 이후 발생한 부작용(副作用)을 다소 완화(緩和)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젊은 세대(世代)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한자 활용 능력(能力)이 떨어졌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한글로 적힌 한자 해독(解讀)력과 어휘(語彙) 활용력도 함께 떨어지게 됐다.

동대신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독자들의 한자능력 고취를 위해 이번 1478호부터 국한문병기를 실시한다. 비록 한글전용에 익숙한 독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해 한문병기를 실

시할 예정이다.

독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

이번 이학기 신문에서는 지난 하계방학 동안 동국미디어센터에서 해외특별취재단을 구성해 아시아(홍콩대, 싱가포르대, 일본 리츠메이칸 APU, 교토대, 교토불교대, 중국북경대, 칭아대)와 유럽(런던 UCL, 파리 4대학), 미국(뉴욕대, 콜롬비아대)의 특성화된 대학들을 취재해 연재한다. 대학발전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이 공동으로 취재단을 구성해 세계 주요 대학을 돌아보고 우리대학의 변화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동대신문은 또, 인터넷 신문을 더욱 강화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학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판형 변경을 비롯한 여러 매체혁신의 몸짓이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정용재 편집장 wonder@dongguk.edu

보리수

안거(安居)

장병조
윤리문화학과 교수

여름의 두 달 동안 불교수행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정진하는 것을 안거라고 한다. 인도말로는 뱀사(Vassa)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늘 지켜오던 불교의 전통이었다. 인도의 여름은 덥다 못해 잔혹하다. 3월부터 여름이 시작되는데 6월이면 절정이다. 보통 40℃, 어떤 때는 50℃를 넘을 때도 있다. 한낮의 더위는 그런대로 피할 수 있지만 최저기온이 30℃를 넘으면 견디기 어렵다. 7월부터는 우기인데 기온은 40℃를 넘지 않지만 그 무더위, 습기 때문에 딱 힘들다. 오죽해야 불경에는 극락세계를 묘사하면서 “서늘하다”, 즉 청량(淸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부처님 당시의 출가수행인들은 슈라마나(Sramana)라고 불렀다. 기성종교의 권위에 반발하고 독자적인 수행체계를 갖추었던 천애의 방랑자들이다. 나중에는 이들을 불교의 출가수행자로 부르게 되었다.

부처님도 슈라마나였고 중국에서는 그들을 사문(沙門)이라고 번역하여 불렀다. 불교사문들은 천하를 순방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혹은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은 이 만행(萬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기의 두 달은 폭우 때문에 바깥출입이 어렵다. 또 땅이 질퍽해지면 지렁이 등이 지표에 나오는데 본의 아니게 그들 생명을 밟아 죽이는 일도 생겼다. 이것이 외도들에 의한 불교비판이 되기도 하였는데 부처님은 이때부터 하안거(夏安居)를 제도화하였다. 많은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수행하려면 장소가 필요했고, 그것이 사찰의 효시이다. 인도의 절은 그 기능으로 보아 예배소인 차йти야(Chaitya)와 수행처인 비하라(Vihara)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절은 이 두 기능을 합친 형태이다. 안거기간 동안에는 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거나 혼자만의 좌선을 하는 등, 일종의 자기충전 시간을 활용하였다. 사실 불교의 힘은 바로 이 ‘수행’에서 비롯된다. 수도의 정신이 사라진 불교는 타락과 현실안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별써 동악의 안거도 끝나간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내용만이 진리인 것은 아니다. 살아 생동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와 진실을 배우는 법이다. 이제 안거가 끝나면 또다시 동악에는 젊음의 몸짓들이 가득하리라. 가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지겨운 무더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흐르는 세월은 무상이기도 하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실한 삶의 근거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 김대중 전 대통령 영면(永眠)

23일 국회서 영결식 엄수...추모객 발길 끊없이 이어져

지난 23일 국회 앞마당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거행됐다. 장례순서는 발인, 영결식, 운구, 안장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와 비슷하게 진행됐다. 영결식은 이날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전직 대통령, 주한외교단, 장의위원 등 주요 인사들과 일반 국민 등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영결식을 마친 후 운구 행렬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았던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도서관을 거쳐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을 지나갔다.

이후 운구 행렬은 장지인 동작동 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고(故)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은 현충원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됐다.

고(故)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현충원의 국가유공자 제1묘역 하단부에 봉분과 비석, 상석, 추모비 등을 합쳐 264㎡ 규모로 조성됐다.

고(故) 김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돼 22일 일반병실로 옮겼다. 하지만 하루 뒤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지난 18일 오후 1시43분 서거했다.

1924년 전남 신안에서 4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목포 북교초등학교와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목포일보 사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63년 목포에서 6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뒤 7,8,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인권신장, 통일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정착, 한반도 평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재임 기간, 6.25 전쟁



▲지난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

후 최대 국민이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최고의 정보화사회를 구현했으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해방 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었고, 그 공로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본사사령

◇임기만료

▲ 편집장=정동훈(경제3)

◇신임 부장

▲ 편집장=정용재(영어통번역2) ▲ 대학부장=김활란(문예창작2)
▲ 학술부장=이정민(정보통신2) ▲ 문화부장=이신혜(신문방송2)
▲ 사진부장=김윤수(경제2)

◇임정기자

▲ 이슬비(국어국문1)
▲ 이지연(국어국문1)
▲ 백선아(불교미술1)

- 이상 8월 2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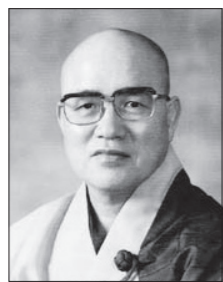
“크기는 Compact 내용은 Impact”

동대신문이 기존의 대판형에서 베를리너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면수로 더 많은 정보를 담아 좀 더 좋은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대신문

제 36대 이사장 정련스님 취임

정련스님, “중단과의 소통 및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련스님이 제 36대 이사장으로 취임(就任)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제 245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영배스님의 후임에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을 만장일치로 신임 이사장에 선출(選出)했다. 이사회는 또 수원사 주지 정관스님을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는 하안건 결재중인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년스님을 제외한 전체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신임 이사장 정련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중단과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계종 총무원과 새로

운 협력관계 정립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정련스님은 “학교 미래 비전과 중장기 학교발전을 위해 재정여건을 만들고 이사회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것이며 학생과 교직원, 대학본부와 이사회 등 학내 구성원간의 소통과 단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 정련스님은 지난 1958년 선암사에서 출가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과 포교원장, 조계종 민중공동체추진본부장과 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역임(歷任)했다.

한편 정련스님은 지난 7월 21일 중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 36대 이사장에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정련스님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안정화하고, 조계종단과의 관계를 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련스님은 “중단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현안들을 충분히 풀어놓고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겠다며, 협력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움을 간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우리학교가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평가가 뒤쳐져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 사업 강화, 구성원들 간의 화합, 조계종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정각원장 법타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부림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 등 각계 인사들과 교직원, 신도, 학생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오영교 총장은 정련스님의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동국대의 발전이 곧 불교의 발전이다. 정련스님 아래 동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표명(表明)했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중앙도서관, 1개 층 증축공사 완공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중앙도서관 증축공사가 완료돼, 학내 열람실 공간 부족 문제를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축 공사를 통해 중앙도서관 4층에는 대형 열람실 2개와 노트북 열람실 1개, 총 900여개의 좌석이 증설됐다. 증가된 열람실 좌석수는 제 1열람실 478석, 제 2열람실 359석, 노트북 열람

실 63석이다. 중앙도서관 증축 공사를 통해 현재 교내 총 열람좌석은 중앙도서관 좌석 합계 2,640석, 동국관, 명진관, 원흥관, 학림관의 4개 건물 열람좌석 575석으로 총 3,215석이 됐다. 이로써 재학생의 27%가 열람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도서관 증축과 더불어 도서

관 내 휴게실로 이용되던 3층 라운지는 세미나실로 변경됐다. 현재 세미나실은 세미나 및 그룹스터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4개의 테이블과 빈프로젝트를 설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증축된 열람실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백선아 기자 ittleche@dongguk.edu

2010학년도 입학정원조정안 발표

독어문화학 전공 2010학년도 부터 신입생 미선발, 사실상 폐지

2010학년도 입학정원조정안이 발표(發表)됨에 따라 독어독문학 전공은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사실상 폐지(廢止)로 결정됐다.

전체 53개 학과(전공)중 물리학과를 포함한 하위 1~4위 학과는 입학정원 15% 하향(下向) 조정, 철학전공을 비롯한 하위 5~8위 학과는 10% 하향 조정됐다. 한편 하위 5~8위 학과에 해당하는 수학과(46위), 전기공학과(48위)는 정원 하향 조정에서 제외됐다. 수학과와 경우, 교직과정을 개편해 입학정원 조정이 1년간 유예(猶豫)됐고, 전기공학과는 전자전기공학부로 통합되면서 3년간 정원조정이 유예됐다.

입학정원 하향 조정으로 확보된 정원은 신설학과 및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配定)된다. 이

반 2010학년도 입학정원조정 결과는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適用)된다.

2010학년도 입학정원조정안은 △입학성적(15%) △입학 당시 경쟁률(5%) △편제 정원 대비 재학율(40%) △취업 및 진학률(25%) △교수 1인당 대학원생수(15%)의 항목으로 평가됐으며 고등교육법에 입학정원의 제약이 있는 사범대학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위 1~4위 학과 정원조정 △사회학전공= 30명→26명 △윤리문화학전공= 20명→17명 △물리학과= 30명→26명 ▲하위 5~8위 학과 정원조정 △철학전공= 21명→19명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60명→54명 ▲학부 통합 △불교학부 불교학·인도철학·선학 전공 → 불교학 전공(세부전공 통합) △IT학부

전자공학전공·전기공학과 → 전자전기공학부 △IT학부 컴퓨터공학전공·정보통신공학전공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학과 전환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 생명과학과 △바이오학부 의생명공학전공 → 의생명공학과 △식품과학부 식품산업시스템 전공 → 식품산업관리학과(사회과학대학으로 편제 이동) △바이오학부 식물생명공학전공·환경생태공학전공 → 바이오자원환경학과 ▲입학정원 증원 대상학과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30명 →40명 △바이오학부 의생명공학전공=26→38명 △IT학부 컴퓨터공학전공·정보통신공학전공=175명 →180명 ▲기타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학과 명칭 변경)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2009학년도 가을학위수여식

학·석·박사 모두 1,119명 학위수여

2009학년도 가을학위수여식이 지난 21일 개최돼 학사, 석사, 박사 모두 1,119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가을학위수여식은 이사장 정련스님, 오영교 총장, 전순표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11시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가을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606명, 일반대학원 석사 141명, 일반대학원 박사 70명, 특수대학원 석사 300명, 특수대학원 박사 2명이 학위를 받았다.

오영교 총장은 졸업 식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해 어려운 일들이 많았

지만, 동국에서 배운 정신으로 역경을 이겨내리라 믿는다”며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오 총장의 졸업 식사에 이어 이사장 정련스님은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총장과 교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는데 정진해 주길 바란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순표 총동창회장은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문들이 있다”며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관련기사 4면

우리대학-ETRI, MOU 체결

연구센터 설립...새로운 학연협력의 전기 마련

우리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정보통신 기술발전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오영교 총장과 원장 ETRI 최문기 원장은 지난 7월 8일, 본관 회의실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력 협정(MOU)을 체결하고 새로운 차원의 학연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인력 교류, 연구 정보자료 공유 등의 연구 활동을 상호 협력 하에 수행하고, 통신응용, 로봇응용, 에너지관련 등의 부품, 시스템분야와 디지털 콘텐츠분야, 의료, 바이오관련 부품, 시스템분야 등에서 기술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교두보로서 ETRI가 올해부터 새로운 학연협력 모델로 약 20여개 대학과 추진하고 있는 ‘ETRI-대학간 Open R&D 센터’ 중 하나를 우리대학 내에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센터를 통해 R&D 공동기획, 중장기 개방형, 통합형 공동연구 수행, 연구인력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오영교 총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곧 운영에 들어갈 ‘Open R&D 센터’를 통해 학연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국가 과학기술과 양 기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를 통해 학연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국가 과학기술과 양 기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온누리’ 개점 학교기념품 판매 시작

우리대학을 상징(象徵)하는 로고가 새겨진 대학기념품을 전시·판매하는 가온누리 기념품점이 지난 9일 개관식을 갖고 판매(販賣)를 시작했다.

전략홍보실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가온누리 기념품점은 약 13㎡ 내지의 공간으로 중앙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다.

가온누리 기념품점에서는 우리대학 UI로고가 새겨진 부채, 연필, 시계, 컵 등의 기념품과 함께 식음료를 판매한다.

UI로고 기념품 사업은 우리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관리 차원의 홍보수단으로써 기획된 사업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은 총 30여개의 종류로, 디자인에 따라 90여개의 기념품이 있다.

회견문대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님은 갔습니다. 아...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민주주의를 깨치고 1시 43분이라는 숫자 향하여 자연의 섭리라는 길을 따라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처럼 빛나던 평화통일의 꽃은 또 한 번 차디찬 티끌처럼 한숨의 미풍에 휘청거렸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애도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댕니다.

세상을 비추는 힘

○...가을의 길목에 서서 찬란한 햇빛과 함께 졸업을 맞은 선배님들 민족통국의 위상을 등에 업고 세상을 비추는 파스한 한줄기 빛이 되시길

보릿고개 수강신청

○...희망 강의 다 받아놓고 왜 시간, 교수 마음대로 바꾸냐. 희망강의는 정말 희망 강의일 뿐. 강의 신청 다 해놨더니 이제 와서 “오류 나서 정원 잘못 썼네요. 13명 무작위로 나가주세요~” 등록금 납부하고 듣고 싶은 강의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어이구! 이견 뭐 지식도 못 채우는 보릿고개네!”

학생을 위한 불편!?

○...학생들을 위한 스튜던트 존 학생위해 온갖 서비스 총집합 한걸 높아진 서비스 보여주고 자 한층 높아진 바닥 터! 문을 열면 바닥과 쿵! 닫아도 쿵! 향상된 서비스, 불편한 이동 CS, Customer Sacrifice의 약자?

동약투에서



김활란 대학부장
lan@dgu.edu

악순환의 고리

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홍성조 학사지원본부장은 “단순히 학교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학생들의 의사 표현 방식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일 경우에는 징계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학교 측이 진통을 겪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소명기회’에 대해서도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다. 신동욱 총학생회장은 “이번 연좌농성은 학우들과 함께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소명을 받을 때도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성조 학사지원본부장은 “농성에 단순 가담한 학생이 있는 반면,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도

있다”며 “개인의 행위에 대해 상벌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동소명 주장을 일축했다.

언제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 이상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는 소통 방식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학교 측 역시 물리적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는 있다. 문제는 이제 소통을 시작하려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이 원만한 합의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 시기가 바로 얼마 전이다. 징계가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농성’과 ‘징계’,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야 할 때다.

일산 의생명공학캠퍼스 1단계 착공

지난 17일 착공식, 강의동 및 산학협력관 등 1만 5천㎡ 조성



▲ 지난 17일 열린 의생명공학캠퍼스 착공식

우리대학 일산 의생명공학캠퍼스 1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着工)에 들어갔다. 이번 의생명공학캠퍼스 1단계 사

업은 강의동과 산학협력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8월까지 지하 1층, 지상 8층, 1만 5026㎡ 규모로 추진(推進)된다. 의생명공학캠퍼스 내에는 각 단과대학의 강의동 공간, 중소기업청·경기도 고양시가 지원하는 BT창업보육센터(약 80여개 바이오 관련기업 입주)와 임상시험센터가 들어선 산학협력관이 지어질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메디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한 2단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1단계 사업 후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16만9999㎡ 부지에 2020년까지 캠퍼스 건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고양메디클러스터는 우리대학의 의생명공학캠퍼스와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33만~50만㎡ 규모로 조성되는 의료복합단지다. 고양메디클러스터에는 국내·외 기업연구소, 벤처연구타운, 의료복지타운, 의료서비스 시설 등 바이오 관련 인프라가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의생명공학캠퍼스 1단계 사업 착공식은 지난 17일,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에서 진행됐다. 착공식에는 이사장 정련스님,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강현석 고양시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백성운 국회의원 등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사진부장 yshero21@dgu.edu

“동국대 로스쿨 탈락은 위법”

고법, 현재 상황 인해 결정변복 불가

우리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탈락은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할 경우,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로스쿨 인가 결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 28일 우리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교육부가 동국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明示)했다.

우리대학의 로스쿨 탈락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측은 법학전문대학원 탈락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대학 측의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가 교과부가 내린 로스쿨 선정결과의 위법성에 대해 분명하게 적시함에 따라 교과부의 위법성에 대해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용재 편집장 wonder@dgu.edu

본관 점거 농성한 학생들 징계

총학생회 학생 징계 두고 상벌위원회에 항의

총학생회가 지난 6월에 벌였던 본관점거에 대해 학교 측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신동욱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9명의 학생들에게 유기징학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측이 통보한 징계 대상자는 문과대 30명, 법과대 5명, 사과대 4명, 예술대 1명, 사범대 1명, 불교대 1명, 모두 42명이다.

신동욱 총학생회장, 이은지 부총학생회장, 박인우 문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9명의 학생들은

유기징학 5주, 이윤하 문과대 부학생회장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유기징학 1주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징계 대상자 42명 중 14명은 제외, 19명은 공식적인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징계에 대해 학생회 측은 지난 29일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만해관에서 소견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ROTC 후보생 전원 장학금 받을듯

성영석 동문회장 후배 위해 장학금 3천만원 전달

ROTC 동문회(회장 성영석)는 우리대학 후배 ROTC 후보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협약을 학교와 체결하고, 공동으로 기금 조성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영석 회장은 “우리 대학 ROTC 대학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전체 동문들이 합심해 후배들을 위한 장학

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우선 “올해 2억 원을 모금하고, 2010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펼쳐보였다.

협약식에 이어, 성영석 회장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속히 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며, 장학금 3천만 원을 쾌척하였으며 동문들의 기부 약속서도 함께 전달했다.

출판부 도서 4종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난해 3종 선정에 이어 다시 4종 선정

우리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학술도서 4종이 대한민국학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09 우수학술도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작년에 3종이 선정된 데 이은 것이다.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는 『한국전통 담보제도』(법학과

김재문 교수 지음)가, 문공부 우수학술도서에는 『일본 불교사 근대』(가사와하라 유선 저, 원영상 외 번역), 『고귀한 야만』(사학과 양홍석 교수 지음), 『아프리카 사상계를 읽다』(교양교육원 권보드레 교수 외 지음)가 선정됐다.

2010학년 입학사정관 전형 설명회

포트폴리오 작성법, 면접 잘하는 법 조언

입학처가 주최한 2010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설명회가 지난 8일 개최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전형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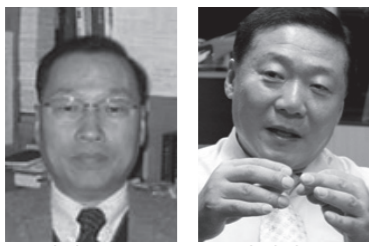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대표적 전형인 자기추천

전형에 대한 설명은 물론 2009년도 합격생의 준비과정과 지원경험도 소개됐다.

또 2009년도 자기추천전형 합격생을 지도한 현직교사는 자기추천서와 포트폴리오 작성에 관한 노하우를 공개했다.

국고 사업 수주 잇따라... 총 349억원 지원

건학이후 최대 규모의 국고지원, 교과부 지원 사업만 3개



△박정국 교수 △강태원 교수

최근 우리대학의 연이은 국가 사업 수주로, 총 349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 대내외적으로 화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사업만 모두 3개가 선정되는데, 중소기업청 지원의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얻어진 대대적인 성과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박정국 교수팀의 융합기술 사업,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까지, 4개의 사업 선정으로 각각 지원받는 금액은 150억, 60억, 40억, 20억원이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은 우리대학이 산학협력중심대학과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인재양성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돼, 국고지원 최대 150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17억원, 참여기업 부담금 12억원등 모두 179억원의 지원을 받게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우리대학이 설립된 이래 수주한 외부지원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우리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의 교육·연구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전환,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공동사업으로 추진돼 온 것이다.

우리대학은 이번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IT기반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창의산업 벨트(종무로와 상암 DMC) 프로젝트’와 경기도의 ‘한류우드’ 프로젝트를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종무로 Culture Valley) 조성’을 선도할 예정이다.

또한 박정국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미래 융합기술 사업에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신경질환치료 미래융합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제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박정국 교수팀은 2009년도 미래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에 선정돼, 6년간 6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미래융합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은 5~6년의 연구기간을 통하여 신산업 창출의 동력이 되는 융합원천기술과 국제원천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고

수익(High-risk, High-return)형 사업이다.

박정국 교수는 이번 과제 수주를 통해 2009년부터 6년간, 매년 10억 원씩 국고 지원을 받는다.

박정국 교수에 이어 물리학과 강태원 교수도 교과부에 제출한 ‘IMT와 CNSI 기관 유치를 통한 나노-정보 기술 연구 과제’가 최종 선정돼 향후 6년 간 4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교과부가 지원하는 2009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우리대학 물리학과 강태원 교수(양자기반도체연구소장)의 연구 과제가 선정됨에 따른 결과다.

앞으로 우리대학은 기초 물리학을 기반으로 Nano Technology(NT)와 Information Technology(IT) 분야에서 세계적 업적과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수 연구기관인 러시아의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Technology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 (IMT-RAS)와 미국 UCLA 대학의 California Nano System Institute (CNSI)의 분소를 본교에 설립하고 이들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서로 상호간에 축적된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원 양자기반도체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수주에 대해 “앞으로

우리대학 지난해 기부금 증가순위 4위

2007년 대비 41억원 순증가해 눈길

우리대학의 지난해 기부금 수입 증가(增加)가 전국 대학중 네번째로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7월 22일 보도한 2008 대학 회계결산 종합분석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중앙대, 가톨릭대, 대구대에 이어 기부금 수입 증가폭이 큰 대학 순위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부금 모금 총액에 있어서는 모두 112억원의 모금액으로 15위를 차지했다.

우리대학은 2007년 기부금 수입이 71억원에서 지난해 112억원으로 41억원이 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의 지난해 발전기금 모금액이 94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다 법인 기부금 수입도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대학은 성균관대로 기부금 모금액이 6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의 경우 교비기부금은 173억원이었지만 법인기부금이 462억원에 달해 모금액 순위 1위에 올랐다.

한국대학신문은 이번 조사가 결산 회계상 수입으로 잡힌 기부금, 즉 실제로 들어온 금액만 포함했으며 약정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금 수입은 각각 기부금 수입 주체인 법인, 학교, 산학협력단의 3가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감사직에 진만스님

법인 사무처장에는 종성스님 선임



△진만스님 △종성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 감사에 진만스님이 선임됐다.

재단이사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 246회 이사회를 본관 5층 교무위원회실에서 개최하고 지난해 감사직을 사퇴한 성월스님의 후임으로 진만 스님을 선임했다.

진만스님은 1968년 화염사에서 명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

재무국장 겸 여수 흥국사 주지를 지낸 바 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11대-14대)을 역임했다. 진만스님은 앞으로 성월스님의 잔여임기인 2010년 2월 7일까지 감사직을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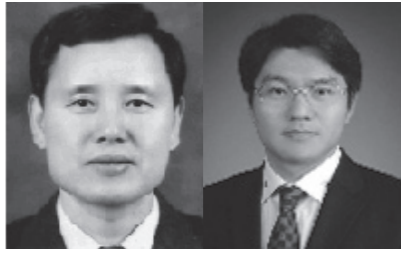
한편 지난 21일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이사장=정련스님)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성스님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종성스님은 현성스님을 은사로 1984년 계를 수지했고, 해인사 포교국장을 지냈으며, 청담학원 감사와 제 14대 중앙종회의원 소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활란 대학부장 lan@dongguk.edu

2009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 석·박사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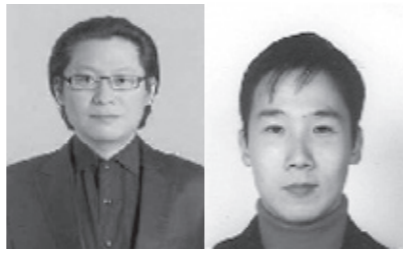
박사학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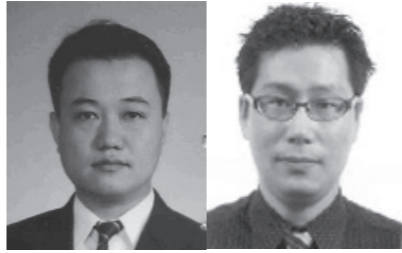
▲ 김종만 박사 ▲ 김성필 박사



▲ 정하운 박사 ▲ 김여자 박사



▲ 오정표 박사 ▲ 김승욱 박사



▲ 김흥도 박사 ▲ 문병혁 박사



▲ 홍재익 박사 ▲ 허진석 박사



▲ 염중섭 박사 ▲ 차명희 박사



▲ 강성모 박사 ▲ 조재한 박사



▲ 맹수진 박사 ▲ 김창민 박사



▲ 조재용 박사 ▲ 김은정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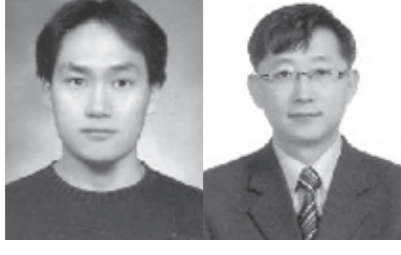
▲ 정경호 박사 ▲ 전규일 박사



▲ 김경숙 박사 ▲ 김성희 박사



▲ 김경미 박사 ▲ 홍상민 박사



▲ 진용재 박사 ▲ 나선택 박사



▲ 신영진 박사 ▲ 소갑석 박사



▲ 이운욱 박사 ▲ 이선이 박사



▲ 심종택 박사 ▲ 이종섭 박사



▲ 서광익 박사 ▲ 손윤식 박사



▲ 강민정 박사 ▲ 송형수 박사



▲ 최승성 박사 ▲ 정벤운 박사



▲ 김상의 박사 ▲ 박재석 박사

▲ 김중만 정보관리학과 의사결정전공 ▲ 김성필 관광호텔경영학과 이벤트경영전공 ▲ 정하운 관광호텔경영학과 푸드비즈니스전공 ▲ 김여자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전공 ▲ 강성모 안전공학과 교통안전전공 ▲ 조재한 안전공학과 교통안전전공 ▲ 김완기 안전공학과 교통안전전공 ▲ 맹수진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 ▲ 김창민 한의학과 분초학전공 ▲ 오정표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 김승욱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 이민동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 문병혁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 김진원 한의학과내과학전공 ▲ 조재용 한의학과 침구학전공 ▲ 김은정 한의학과 침구학전공 ▲ 정경호 한의학과 원전의사학전공 ▲ 전규일 한의학과 부인과학전공 ▲ 진용재 한의학과 부인과학전공 ▲ 나선택 한의학과 진단학전공 ▲ 신영진 한의학과재활의학전공 ▲ 소갑석 한의학과 재활의학전공 ▲ 최갑석 한의학과 신경정신과학전공 ▲ 이주연 한의학과 신경정신과학전공 ▲ 김인자 한의학과 신경정신과학전공 ▲ 김중모 의학과 해부학전공 ▲ 이운욱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 이선이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 심종택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 이종섭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 김완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 진철문 선학과 선문화전공 ▲ 조경실 사학과 한국사학전공 ▲ 민승기 반도체학과 반도체학전공 ▲ 김용민 반도체학과 반도체학전공 ▲ 정규호 반도체학과 반도체학전공 ▲ 권영복 법학과 공법전공 ▲ 심동섭 법학과 상사법전공 ▲ 백익 정치학과 한국정치전공 ▲ 신동기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 이철수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유재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전공 ▲ 오세연 경찰행정학과 형사학전공 ▲ 양승돈 경찰행정학과 형사학전공 ▲ 최은하 경찰행정학과 형사학전공 ▲ 유영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 김학범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 전은주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 오규철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 김태곤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 박주상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 권양주 북한학과 북한체제전공 ▲ 김해원 북한학과 대외관계전공 ▲ 최문성 무역학과 무역이론,금융전공 ▲ 정벤운 무역학과 무역이론,금융전공 ▲ 김병현

무역학과 국제통상,지역연구전공 ▲ 김상의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 김상의 식품공학과 식품생화학전공 ▲ 서광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 손윤식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 강민정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 송형수 토목환경공학과 구조공학전공 ▲ 김경숙 교육학과 교육정책전공 ▲ 김성희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 김경미 가정학과 식품영양학전공 ▲ 홍상민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 이만동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 허진석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 염중섭 미술사학과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

〈일반대학원〉

▲ 김은경 유아심리전공 ▲ 정준호 농산물 마케팅전공 ▲ 강재구 관광경영전공 ▲ 조은나 관광레저개발전공 ▲ 김영현이벤트경영전공 ▲ 권진아 사회복지학전공 ▲ 장페이페이 관광경영학전공 ▲ 안정정 관광경영학전공 ▲ 유강 호텔경영학전공 ▲ 이산 호텔경영학전공 ▲ 왕소우 호텔경영학전공 ▲ 이교은 관광레저개발전공 ▲ 조현철 관광레저개발전공 ▲ 최철원 이벤트경영전공 ▲ 이주화 자물학전공 ▲ 박지숙 유전,육종학전공 ▲ 노윤진 동물생리 및 생화학전공 ▲ 강순영 계획,설계전공 ▲ 사바르 전자계산학전공 ▲ 나스리디노프 전자계산학전공 ▲ 김경욱 전자계산학전공 ▲ 장현호 전자계산학전공 ▲ 박민하 연극전공 ▲ 박병수 연극전공 ▲ 한재경 연극전공 ▲ 김재영 영화전공 ▲ 정병진내과학전공 ▲ 김석열내과학전공 ▲ 최인영 내과학전공 ▲ 나유진 내과학전공 ▲ 신경민 침구학전공 ▲ 이동진 침구학전공 ▲ 정소영 부인과학전공 ▲ 이승복 부인과학전공 ▲ 황은진 재활의학전공 ▲ 송규주 신경정신과학전공 ▲ 박지용 신경정신과학전공 ▲ 정용재 체질의학전공 ▲ 김강 내과학전공 ▲ 김민수 내과학전공 ▲ 김순애 내과학전공 ▲ 김정담 비뇨기과학전공 ▲ 김아영 방사선과학전공 ▲ 고우태 피부과학전공 ▲ 박지용 성형외과학전공 ▲ 윤대상 재활의학전공 ▲ 박여경 재활의학전공 ▲ 박성준 재활의학전공 ▲ 임경미 응용불교학전공 ▲ 박애숙 응용불교학전공 ▲ 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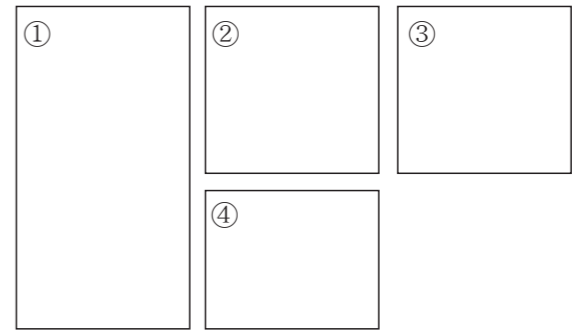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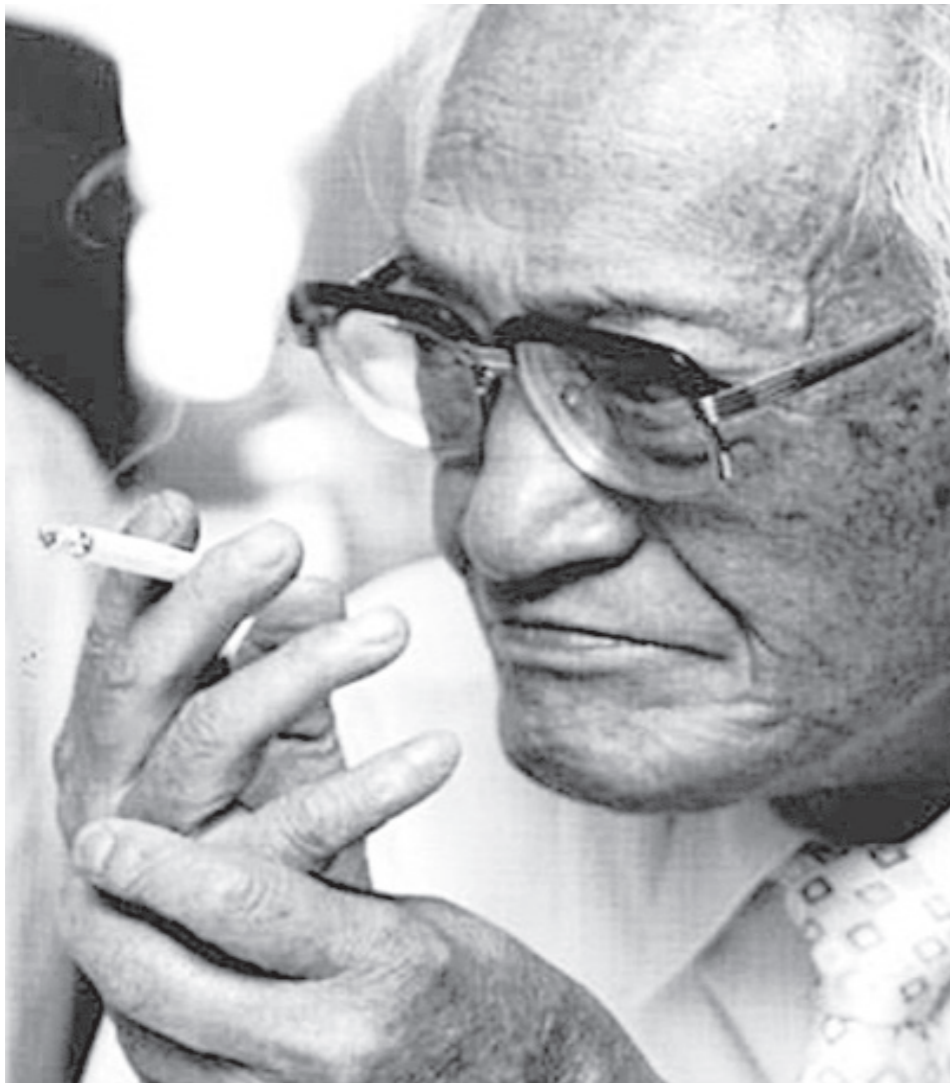
주 불교학전공 ▲ 안병산 불교학전공 ▲ 이상신 불교학전공 ▲ 강병화 불교학전공 ▲ 김진영 불교학전공 ▲ 마테제 마네 불교학전공 ▲ 전미옥 불교학전공 ▲ 심미경 인도불교전공 ▲ 한진우 인도 불교전공 ▲ 조은에 현대문학전공 ▲ 김혜인 현대문학전공 ▲ 이선자 고전문학전공 ▲ 박성호 고전문학전공 ▲ 서기호 고전문학전공 ▲ 남궁윤 고전문학전공 ▲ 김광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 임예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 방민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 왕로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 이정현 영어학전공 ▲ 최현숙 일어학전공 ▲ 박미정 한국사학전공 ▲ 김성희 한국사학전공 ▲ 김낙현 한국사학전공 ▲ 장은혁 서양철학전공 ▲ 김성우 고체물리학전공 ▲ 박윤식 무기화학전공 ▲ 김민서 무기화학전공 ▲ 이태성 유기화학전공 ▲ 우영재 통계학전공 ▲ 송지애 전산통계학전공 ▲ 이소형 반도체학과학전공 ▲ 김병일 반도체학과학전공 ▲ 이영민 반도체학과학전공 ▲ 박세진 형사법전공 ▲ 이세호 사회법전공 ▲ 최규환 범죄수사법전공 ▲ 이범석 범죄수사법전공 ▲ 김성용 과학기술법전공 ▲ 김인선 범죄학전공 ▲ 허준 범죄학전공 ▲ 박광훈 경찰학전공 ▲ 이관용 사회학전공 ▲ 김유리 대외관계전공 ▲ 박아름 통일정책전공 ▲ 석서 신문방송학전공 ▲ 호준 신문방송학전공 ▲ 최성원 경제사전공 ▲ 안상선 수리경제전공 ▲ 이학선 거시,화폐금융전공 ▲ 신태국 국제경제학전공 ▲ 민효정 노동경제전공 ▲ 정종욱 세무회계전공 ▲ 이명진 식품공학전공 ▲ 김동혁 식품공학전공 ▲ 김원우 식품공학전공 ▲ 김수경 식품공학전공 ▲ 서일원 식품공학전공 ▲ 안미경 식품공학전공 ▲ 남혜정 식품공학전공 ▲ 최혜영 식품공학전공 ▲ 임준 전자공학전공 ▲ 김혁수 전자공학전공 ▲ 신현수 전자공학전공 ▲ 윤상진 전자공학전공 ▲ 이재서 전자공학전공 ▲ 윤현진 컴퓨터공학전공 ▲ 김나영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전공 ▲ 최정우 화학공학전공 ▲ 흥대순 화학공학전공 ▲ 오명진 화학공학전공 ▲ 박지호 정보시스템전공 ▲ 조하나 산업공학전공 ▲ 서하나 산업공학전공 ▲ 계현희 산업공학전공 ▲ 임수진 산업공학전공 ▲ 김병주 정보통신전공 ▲ 이범재 정보통신전공 ▲ 조지훈 건설관리 및 경영전공 ▲ 조경진 구조공학전공 ▲ 박정현 국어교육전공 ▲ 김부현 지리학전공 ▲ 김현주 아동·가족학전공 ▲ 권선희 광고홍보학전공 ▲ 김중임 미술사학전공 ▲ 이혜민 미술사학전공 ▲ 이진영 미술사학전공 ▲ 이수정 미술사학전공 ▲ 황소미 한국화전공 ▲ 강민영 서양화전공 ▲ 문병기 서양화전공

〈영상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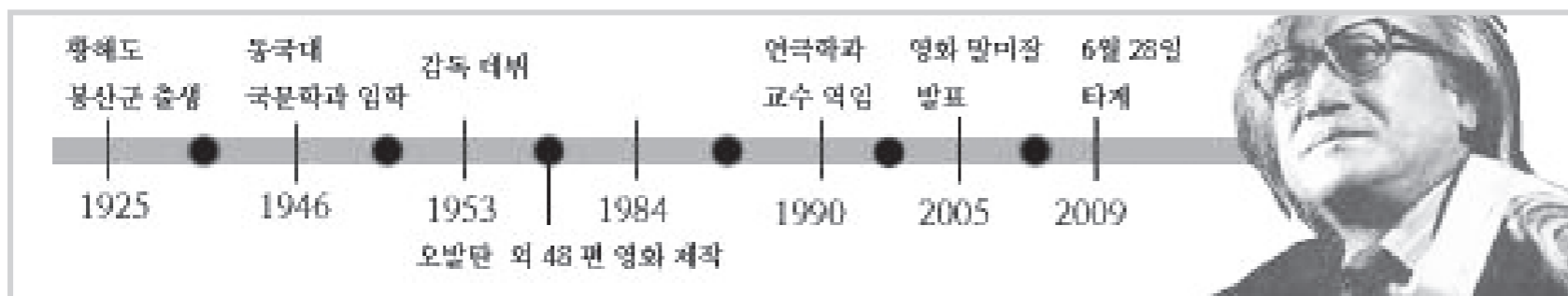
▲ 이종훈 문화예술학석사 ▲ 송태중 영화영상제작석사 ▲ 안승호 영화영상제작석사 ▲ 유태운 영화영상제작석사 ▲ 조은성 영화영상제작석사 ▲ 이지연 영화영상제작석사 ▲ 김소연 영화영상제작석사 ▲ 김경민 영화영상제작석사 ▲ 박지연 영화영상제작석사 ▲ 성진주 문학석사 ▲ 홍은아 디자인학석사 ▲ 임애현 디자인학석사 ▲ 이우성 디자인학석사
 〈경영전문대학원〉
 ▲ 정태운 General MBA(Full-time) ▲ 최한길 General MBA ▲ 이충원 General MBA ▲ 진진호 General MBA ▲ 박연진 General MBA ▲ 박진형 General MBA ▲ 손병기 General MBA ▲ 김도형 General MBA ▲ 공인욱 General MBA ▲ 김은경 CO-MBA ▲ 조정화 CO-MBA ▲ 이정환 무역 석사 경영대학원 ▲ 김민지 부동산 석사 경영대학원
 〈불교대학원〉
 ▲ 김현조(진선) 문학석사 ▲ 정인와 문학석사 ▲ 신미남(재연) 문학석사 ▲ 변성환 문학석사 ▲ 김영보 문학석사 ▲ 이성철 문학석사 ▲ 허형범 문학석사 ▲ 차화석 사회복지학석사 ▲ 함현경 사회복지학석사 ▲ 최원주 사회복지학석사 ▲ 서정화 사회복지학석사 ▲ 조민아 사회복지학석사 ▲ 박철용 사회복지학석사 ▲ 이윤안(정묘) 사회복지학석사 ▲ 이정희 사회복지학석사 ▲ 강광주 사회복지학석사 ▲ 임권엽(미수) 사회복지학석사 ▲ 이용비 사회복지학석사 ▲ 조미나 사회복지학석사 ▲ 박현주(능학) 사회복지학석사 ▲ 박용환 사회복지학석사 ▲ 김은화(현도) 사회복지학석사 ▲ 최남선(도원) 사회복지학석사 ▲ 윤점열(지원) 사회복지학석사 ▲ 이상형(설봉) 사회복지학석사 ▲ 강연정(지한) 사회복지학석사 ▲ 김지훈 문학석사 ▲ 옥길호 문학석사
 〈행정대학원〉
 ▲ 심재민 행정학전공 ▲ 차정철 행정학전공 ▲ 송환진 행정학전공 ▲ 김효진 행정학전공 ▲ 손인만 행정학전공 ▲ 오윤배 행정학전공 ▲ 임용민 행정학전공 ▲ 황인미 정책학전공 ▲ 신두호 경찰행정전공 ▲ 박종석 경찰행정전공 ▲ 오민호 경찰행정전공 ▲ 고근 경찰행정전공 ▲ 허진욱 경찰행정전공 ▲ 진배배 경찰행정전공 ▲ 마준 경찰행정전공 ▲ 한정영 경찰행정전공 ▲ 배경완 경찰행정전공 ▲ 조희배 경찰행정전공 ▲ 박성재 경찰행정전공 ▲ 임창섭 경찰행정전공 ▲ 김규식 경찰행정전공 ▲ 구은수 경찰행정전공 ▲ 손충식 경찰행정전공 ▲ 신상석 경찰행정전공 ▲ 신한호 경찰행정전공 ▲ 김상민 소방행정전공 ▲ 최지용

교도행정전공 ▲ 정은성 민간경비전공 ▲ 이재록 산업보안전공 ▲ 양형욱 산업보안전공 ▲ 김웅진 산업보안전공 ▲ 김태홍 산업보안전공 ▲ 차경현 사회복지전공 ▲ 김희철 사회복지전공 ▲ 김윤수 사회복지전공 ▲ 김문홍 사회복지전공 ▲ 진병규 사회복지전공 ▲ 민조원 사회복지전공 ▲ 권용민 사회복지전공 ▲ 인화분 사회복지전공 ▲ 김영옥 사회복지전공 ▲ 윤희동 사회복지전공 ▲ 정혜련 사회복지전공 ▲ 조성례 사회복지전공 ▲ 신정옥 사회복지전공 ▲ 임영희 사회복지전공 ▲ 김도연 사회복지전공 ▲ 최명선 사회복지전공 ▲ 김호윤 사회복지전공 ▲ 박상섭 사회복지전공 ▲ 장영심 사회복지전공 ▲ 이지연 사회복지전공 ▲ 손소희 사회복지전공 ▲ 배형남 사회복지전공 ▲ 방윤호 사회복지전공 ▲ 김명섭 국방학전공 ▲ 최성신 군사전략전공 ▲ 민경환 안보정책전공 ▲ 이상배 북한체제전공 ▲ 정재현 통일정책전공 ▲ 오복섭 북한체제전공
 〈교육대학원〉
 ▲ 성혜숙 영어교육전공 ▲ 김지현 영어교육전공 ▲ 황희정 국어교육전공 ▲ 이수빈 역사교육전공 ▲ 이병철 상담심리전공 ▲ 정소영 상담심리전공 ▲ 김효정 미술교육전공 ▲ 허태현 역사교육전공 ▲ 조수연 미술교육전공 ▲ 성민경 영어교육전공 ▲ 정명경 유아교육전공 ▲ 박찬일 역사교육전공 ▲ 윤석용 체육교육전공 ▲ 윤선의 체육교육전공 ▲ 황보미 영어교육전공 ▲ 정지혜 역사교육전공 ▲ 김나운 영어교육전공 ▲ 박소현 국어교육전공 ▲ 이혜미 유아교육전공 ▲ 손민선 유아교육전공 ▲ 윤민경 유아교육전공 ▲ 배병은 상담심리전공 ▲ 박민영 상담심리전공 ▲ 서지현 상담심리전공 ▲ 이해영 상담심리전공 ▲ 권지영 상담심리전공 ▲ 이지혜 국어교육전공 ▲ 정재희 국어교육전공 ▲ 양현아 국어교육전공 ▲ 이정화 국어교육전공 ▲ 최세현 국어교육전공 ▲ 전세영 국어교육전공 ▲ 박경화 국어교육전공 ▲ 김지혜 국어교육전공 ▲ 이현주 역사교육전공 ▲ 이요한 역사교육전공 ▲ 백유진 역사교육전공 ▲ 김은영 역사교육전공 ▲ 김윤미 역사교육전공 ▲ 이재연 역사교육전공 ▲ 홍승진 역사교육전공 ▲ 한규영 수학교육전공 ▲ 김소정 수학교육전공 ▲ 신선에 수학교육전공 ▲ 양윤지 수학교육전공 ▲ 김민희 수학교육전공 ▲ 형태우 수학교육전공 ▲ 정우정 수학교육전공 ▲ 이민정 수학교육전공 ▲ 이영희 수학교육전공 ▲ 신석영 수학교육전공 ▲ 이석우 윤리교육전공 ▲ 한계백 윤리교육전공 ▲ 이은재 미술교육전공 ▲ 윤염필 미술교육전공 ▲ 도형주 미술

교육전공 ▲ 이효진 미술교육전공 ▲ 이경민 미술교육전공 ▲ 채봉기 체육교육전공 ▲ 임현아 체육교육전공 ▲ 장지은 체육교육전공 ▲ 김민의 영어교육전공 ▲ 정나래 영어교육전공 ▲ 권필명 영어교육전공 ▲ 김수연 영어교육전공 ▲ 정진아 영어교육전공 ▲ 이선혜 영어교육전공 ▲ 이나연 영어교육전공 ▲ 김윤미 영어교육전공 ▲ 심고은 영어교육전공 ▲ 도희경 생물교육전공 ▲ 이윤경 생물교육전공 ▲ 조은영 생물교육전공 ▲ 박지희 생물교육전공 ▲ 유현진 생물교육전공 ▲ 정연진 가정교육전공 ▲ 장자경 가정교육전공 ▲ 박인정 중국어교육전공 ▲ 김고은 중국어교육전공 ▲ 박서영 중국어교육전공 ▲ 박경화 중국어교육전공 ▲ 정혜옥 중국어교육전공 ▲ 정지현 중국어교육전공 ▲ 백선영 중국어교육전공 ▲ 김은영 컴퓨터교육전공 ▲ 유동남 컴퓨터교육전공 ▲ 정현숙 컴퓨터교육전공 ▲ 박소연 일어교육전공 ▲ 황수경 일어교육전공 ▲ 이수연 국어교육전공 ▲ 박지연 유아교육전공 ▲ 권영자 유아교육전공 ▲ 김미현 유아교육전공 ▲ 김숙영 유아교육전공 ▲ 송영영 국어교육전공 ▲ 김경민 국어교육전공 ▲ 강송석 국어교육전공 ▲ 이선미 수학교육전공 ▲ 박성희 수학교육전공 ▲ 김정진 수학교육전공 ▲ 구정순 수학교육전공 ▲ 정혜정 수학교육전공 ▲ 노현성 영어교육전공 ▲ 류정화 국어교육전공
 〈문화예술대학원〉
 ▲ 이상미 문예창작전공 ▲ 우희숙 문예창작전공 ▲ 김용택 시전공 ▲ 이명숙 소설, 드라마전공 ▲ 이경현 소설, 드라마전공 ▲ 김우홍 소설, 드라마전공 ▲ 신우정 공연예술전공 ▲ 김진욱 공연예술전공 ▲ 이순양 공연예술전공 ▲ 이재운 불교미술전공 ▲ 임유하 불교미술전공 ▲ 이병진(덕립) 한국음악전공 ▲ 양은희 한국음악전공 ▲ 오영기 한국음악전공 ▲ 백은실 한국음악전공 ▲ 이연경(도경) 한국음악전공 ▲ 정은혜 문화재전공 ▲ 구미주 문화재전공 ▲ 정수희 문화재전공 ▲ 엄미금 문화재전공 ▲ 서민지 문화재전공 ▲ 양승룡 공연예술경영전공 ▲ 정영진 공연예술경영전공 ▲ 장경숙 공연예술경영전공 ▲ 임성민 조형예술경영전공 ▲ 박소희 조형예술경영전공 ▲ 최경선 미술치료전공 ▲ 남태희 미술치료전공 ▲ 이효숙 미술치료전공 ▲ 김정은 미술치료전공 ▲ 이선혜 미술치료전공 ▲ 이윤희 미술치료전공 ▲ 김현숙 미술치료전공 ▲ 추성진 미술치료전공 ▲ 김명 미술치료전공 ▲ 박은혜 미술치료전공 ▲ 안수연 미술치료전공 ▲ 최성환 불교미술전공



- ① 고인의 생전 모습
- ② 영화촬영 중인 유현목 감독
- ③ 유현목 감독의 발인 현장
- ④ 유현목 감독의 첫 작품 '교차로' 포스터



한국영화의 정부(政府) 스러지다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 던졌던 '영원한 자유인'



강성률
영화평론가, 광운대 교수

2009년 6월 28일 향년 84세로 유현목 감독이 별세했다. 이 문장은 단지 영화감독 유현목 개인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중반의 한국영화계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의 미한다.

전후의 암울한 현실에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빼어난 미장센으로 표현했고, 한국영화 황금기인 1960년대에는 확고한 스타일을 통해 신상옥, 김기영과 함께 3대 감독으로 칭송받았으며, 영화 검열이 심각하던 유신 시절에는 젊은 영화인들의 아지트인 '영상시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한국적 영화를 찾던 감독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현목의 영화를 표현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예술적'이라거나 '무겁다'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 말은 유현목은 영화를 가벼운 오락적인 매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현목은 영화야말로 인간의 깊은 고뇌를 담을 수 있는 종합예술로 생각한 듯하다. 이 말은 결코 과장된 수식이거나 허언이 아니다.

유현목의 생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를 따라 즐겁게 교회에 다니던 유현목

이 혼자 서울로 유학을 와서 느꼈을 고향은 무서운 것이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기관지염을 앓으면서 삶에 대해 허무적인 감성을 갖게 된다. 그에 의하면, 그 당시 읽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삶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이다. 치료를 위해 고향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유현목은 예술적 감성을 키웠다. 유현목의 영화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매우 뛰어난 영상으로 표현했고, 영상과 음악의 몽타주를 자주 사용한 것도 이런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현목의 영화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때문에 그의

쟁을 겪으면서 한국영화는 제자리 걸음을, 아니 후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유현목은 당시 실존 문제와 전쟁의 상처를 고루 다루었던 문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민하던 중고 시절 문학에 매료되었던 청년이 문학을 영화화하는 것, 그 문학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유현목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영화화했다. 훗날 유현목의 대표작을 꼽을 때에도 대부분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다.

유현목이 연출한 영화 가운데 문학을 원작으로 한 것에는 오영진

나아가 한국적인 영상의 추구로 이어진다. 결국 유현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존적인 공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유현목은 반공영화를 꽤 많이 만들었다. 1960년대 이후의 전형적인 반공영화처럼 무거운 반공영화는 아니었지만, 그가 반공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가 반공법 때문에 이만희 감독이 구속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자유"라고 주장하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유현목은 북한의 억압적인 독재 체제도 반대하지만, 반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아닌 자유" 주장했던 일화도

영화를 보고나면 즐겁기보다는 어두워진다. 동국대 국문학과에 입학해 극작을 하면서 영화로 방향을 잡은 것이기에 문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유현목의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문예영화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던 1955년에 감독으로 데뷔한 유현목에게 전후 비참한 한국의 현실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원로 영화평론가 이영일은 유현목의 영화를 두고 "공간의 황폐, 인간 내면의 황폐"를 그린다고 말했다. 아마도 이보다 더 정확한 지적은 없을 것 같다. 전쟁의 고통, 분단이 남긴 상처, 이데올로기의 비극, 실존적 자각, 신과 인간의 구원 문제 등을 주로 영화 속에 그려 유현목은 많은 소재를 문학에서 찾았다.

당시 한국영화는 전후의 폐허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일영화를 주로 만들었고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전

의 '인생자암' (1958), 이범선의 '오발탄',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1963), 손창섭의 '임여인간' (1964), 김은국의 '순교자' (1965),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1968), 유치진의 '나도 인간이 되련다' (1969), 방영웅의 '분례기' (1971), 윤홍길의 '장미' (1979), 한눈에 보더라도 매우 다양한 소설가와 희곡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많은 작품이 가운데 '오발탄', '김약국의 딸들', '임여인간', '장미' 등이 있다. 유현목의 영화를 거론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 할 목록이다. 이 목록을 빼놓으면 유현목의 영화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한 원작을 영화화하면서 유현목이 주목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빈곤의 문제, 인간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현목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매우 실존적인 목소리로 담고 있다.

이런 것이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와 신과 인간의 구원 문제, 더

공을 내걸고 실제로는 독재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남한의 체제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현목의 영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빼놓았다. 그것은 유현목의 영화가 내러티브뿐 아니라 스타일 면에서도 매우 빼어나다는 것이다. 한 때 화가와 음악가를 지망했던 경험 덕분인지 그의 영화는 탄탄한 스타일을 자랑한다.

한국영화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대사가 상황을 전부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미장센에 충실했다. 인물과 배경의 조화, 더 나가 배경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도록 했다. 때문에 유현목의 영화를 볼 때에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보다 화면 전체를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화면에 비친 사소한 것이 하나의 세포가 되어 유기물인 한 편의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영화사에서 유현목의 영화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강석우 동문 인터뷰

"잊을 수 없는 스승, 연기 인생의 아버지"

연출진공했지만 유현목 감독 권유로 배우 전향

'진시명사 출고 도아(眞是名師出高徒阿)'란 말이 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난다'는 의미이다. 최민식, 한석규, 박신양 등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는 배우들의 스승인 유현목 감독에게는 이러한 사자성어가 들어맞을 듯하다.



데뷔 이후 영화, 드라마, 라디오 DJ까지 섭렵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유현목 감독의 애제자 강석우 동문(연극영화학77). 강석우 동문은 아직까지 '청람지재(靑藍之才)'라는 말을 달기에는 쑥스럽지만, '유현목 감독'이라는 스승이 있었기에 지금의 배우 강석우가 존재 할 수 있었다며 말을 꺼냈다.

사실 강석우 동문은 유현목 감독같은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우리 대학 연극영화과에 진학 했지만, 배우로 전환하게 됐다고 한다. 유현목 감독이 제자였던 강석우 동문에게 배우로서의 길로 나아가길 권유했기 때문이다. "영화를 전공한 제자 중 배우로 진출한 유일무이한 제자가 '나' 였기 때문에 유현목 감독님이 더 아끼셨는지도 모르지"라고 말하며 너털웃음을 짓는 강석우 동문. "유현목 감독님께서서는 약주를 같이 할 때 항상 '너는 말이야 얼굴을 망치로 3번 두들기고 와야돼'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지. 배우를 할 수 있을 만한 매끈한 얼굴을 가졌다는 말을 이렇게 유화적으로 표현하셨어" 유현목 감독님을 생각하면 이 말이 떠오른다는 강석우 동문. 그에게 있어 유현목 감독은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유쾌한 농담을 던지는 인간적인 면모의 스승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배우로서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데에는 유현목 감독의 도움이 컸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석우 동문은 영화 진흥 공사에서 주최한 제 1회 남녀 주연배우 오디션에서 약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배우로서 데뷔했다. 이를 계기로 첫 영화 데뷔작인 김수용 감독의 영화 '여수'에도 캐스팅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 배우가 된 후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배우 태현진 선배가 말해주기를, 그 당시 네가 800대 1을 뚫을 수 있게 유현목 감독님이 애쓰셨다고 하더군"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유현목 감독님은 김수용 감독님이 신인 배우인 나를 발탁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셨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 제작사에 데려가 제작자 분들과 인사시켜주시곤 하셨지" 마지막으로 강석우 동문은 "그분께 대한 애정이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현목 감독님은 나에게 연기 인생을 열어주셨고, 첫 걸음마를 띄게 도와주신 아버지같은 분이시다."고 말했다. 그는 유현목 감독을 한국 영화계에서 거장의 시대를 이끄는 한 축임과 동시에 따스한 애정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었던 스승 유현목으로 회상하며 인터뷰의 끝을 맺었다.

북한 학술연구 체계 본격 분석한 노작(勞作)



▲ '북한의 학문세계'

이에 우리대학 북한학연구소장인 강성운 교수를 만났다.

강성운 교수는 "북한의 학문은 정치사상 중심의 학문으로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북한학문만의 특징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에는 남한에 없는 '혁명역사학'이나 '주체철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또 남한과 다른 북한학문만의 특징으로는 바로 '인문학'이 사회과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강성운 교수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하기 이전에 그 현상을 바라보는 북한의 관점, 즉 학문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

우리대학 북한학연구소에서 2년여의 연구 끝에 '북한의 학문세계'라는 책을 펴냈다. '북한의 학문세계'는 법학, 정치학, 주체철학, 역사학, 혁명역사학, 경제학, 언어학, 군사학 등 13분야로 나뉜 분야별 학문연구

성과와 연구현황을 총망라한 책이다. 이렇듯 북한의 학문 분류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의 북한 학문 연구의 시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북한학연구소 강성운 교수 2년여 연구 끝 결실 "북한 학문 체계는 정치 이데올로기 중심"

했다"고 답했다. 학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북한의 현황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강성운 교수는 "북한의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학과, 각종 연구 성과 평가자료, 교과서 분석, 도서 분류 등을 '북한의 학문세계'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운 교수는 김일성대학 학보의 전호를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연구 도중의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된 남북 학문 체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강성운 교수는 "인문학, 특히 언어학의 경우는 협력이나 통합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다른 학문의 경우 수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의 경우에도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 수렴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강성운 교수는 "북한의 학문은 이

데올로기에 치우쳐있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강성운 교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의 분야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상당히 이뤄졌으며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며 연구를 진행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성운 교수는 '아직 완전한 연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측에서 이번 연구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해주거나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여에 걸친 연구로 북한 학문 연구의 큰 틀은 마련됐다.

이제 강성운 교수의 바람이 있다면 이번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강성운 교수의 바람이 이뤄질 그 날을 기대해본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사막화 방지 국제활동 활성화 된다

우리대학 산림자원학과 50회 한국임학회 행사 주관



한국임학회 하계총회가 지난 19일 우리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하계총회는 사막화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림사업의 활동 상황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현재 지구에는 총 6가지의 큰 환경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중 산림의 사막화가 현대인 에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아시아의 사막 비율이 점점 올라, 아프리카를 제치고 1위(32.3%)가 되었다. 특히 새로운 산업 발전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제일 사막화가 심각한 중국은 "현재 사막과 전쟁 중"이다. 중국에서 해마다 밀려오는 황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막화를 막으려고 협력 중이다.

북경에서 서쪽으로 2,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쿠부치 사막이 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인데, 모래사막이 61%이고 나머지는 자갈이나 흙먼지로 이뤄져 있다. 이 쿠부치 사막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사막이다. 이곳은 2000년 전까지 푸른 초원이었지만 무분별한 벌목-개간으로 황량하게 변해 버렸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황사의 발원지이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산맥을 지나 강화되어 매년 봄 수천 톤의 모래를 한국으로 유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곳이 한, 중 문화청소년협회(이하

한중미래숲)의 목적지이다. 한중미래숲은 국내 최초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옵저버 자격을 얻은 NGO로, 중국 공청단이나 인민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식수 조달 활동 및 중국 우수 청년들과의 학술교류를 진행해왔다.

한중미래숲은 현재 사막화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쿠부치 사막 조림사업'을 하고 있다. 쿠부치 사막 조림 사업을 한중미래숲과 공청단, 현지 정부의 합작으로, 길이 28km, 폭 0.5km 구간에 나무를 심어 중국

사막화 방지위해

'한중미래숲' 중심으로

쿠부치 사막 식수 운동 벌여

서북부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이 생명이 없는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예전에 초원이었던 쿠부치 사막 주변에는 황하지류가 있어 모래를 조금만 파내도 축축한 흙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곳에 황폐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백양나무와 사류를 심는 뒤에 현지 주민들이 잘 협조해준다면, 심은 나무들은 80% 이상의 안착률을 보인다. 이렇게 자란 녹색 조림이 사막을 가로지른다면 모래의 이동을 둔화시켜 사막화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막화를 성공적으로 저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환경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구가 이동하는지 고정되어 있는지, 강우량과 온도는 어떤지를 따져야 어떤 나무가 효과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나무를 심는 뒤에 수혜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유지하고 관리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한중미래숲의 쿠부치 사막 조림사업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사막을 국제적 협력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넓은 사막에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낮지만, 매년 늘어가는 나무들은 큰 희망을 줄 것이다. 2010년에 완성된다는 이 쿠부치 사막 조림사업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로)
miro@dongguk.edu

불교상징 '연(蓮)' 암 예방 효능 입증

신한승 교수 SCI급 학회지에 연 관련 논문 등재

우리대학 Lotus 기능성 식품소재 연구소가 불교의 상징인 연에서 방출되는 항암성 성분이 현대인 암 치료에 효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식품공학과 조교수 및 Lotus 기능성 식품소재 연구소 소장인 신한승 교수가 8월 자 SCI급 학회지인 Food Science & Biotechnology에 'Antioxidant Activity of the Various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Nelumbo nucifera Caertner'라는 논문

에 게재한 것으로, 연의 과학적인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결과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번 논문에는 연잎, 연줄기, 연근의 다양한 용매추출물이 높은 페놀성화합물 함량과 ABTS, DPPH 라디칼 소거능력을 나타내어 다양한 식품의 천연 보존료와 기능성식품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논문에 대해 신한승 교수는 "이번연구를 통해 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로 Lotus인 연은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려 물 밖으로 웅장한 잎과 맑고 순박한 꽃을 피여 올려, 험난한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달픈 중생을 구원한 석가모니의 불교를 상징하는 식물체로 알려져 있다. 석가 탄생 때 어머니인 마야부인 주위에 오색의 연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연꽃 위에서 탄생했다는 데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됐다. 또한 불좌상의 연 좌대, 사

찰지방 기와의 막새에서 불 수 있는 연꽃 무늬, 초파일의 연화등, 극락세계를 연화 극이라 하는 등, 연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전성기였던 고려 때 연꽃, 연근, 연밥까지도 부처님의 보좌로 인정하여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신성시 하였다.

교내 바이오시스템 대학 내 설립되어있는 Lotus 기능성 식품소재 연구소는 이처럼 불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소재로 개발되고 있는 연의 기능성분과 생리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으로 불교계와 관련된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연이 불교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각종 병마로 시달리는 현대인을 도울 수 있는 의료, 미용, 식품, 문화에 이르는 복합 산업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승 교수는 "우리대학이 불교사학이므로 불교와 관련된 연의 연구를 하게 됐다"며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또한 "연속에 포함된 항산화 효능이 각종 질환에 좋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아직 연의 어떤 세포에서 이런 효능이 나왔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반부이지만 앞으로의 연구를 더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miro@dongguk.edu

문과대, 학술진흥재단 후원 인문주간 행사 개최

9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인문학적 상상력' 강좌 등 열려

우리대학에서 진행되는 '인문주간' 행사가 오는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인문학적 상상력, 아름다운 삶을 열다'와 '자기 변화로서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장충단 심야 인문 강좌-아폴론과 디오니소스'란 주제로 유현우 교수의 '이성과 감성의 이중주', 오국근 명예교수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동질화와 이질화', 봉일원 교수의 '하이테크문화와 하이터치 문화' 강좌가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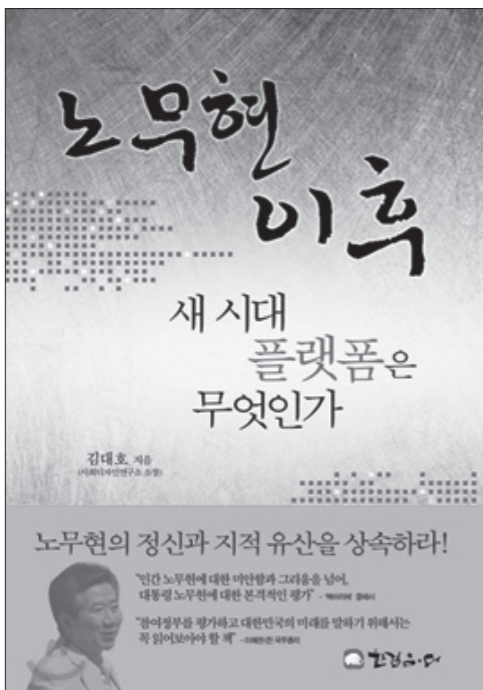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 소통과 창조'란

주제로 전영일 교수와 조의연 교수의 '공학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과 김향배 명예교수와 최인숙 교수의 '한국 인문전통과 다문화 삶'이란 강연회가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편 '명상체험-중용적 삶과 노마드적 삶, 『혼불』 함께 읽기'란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시적 상상력과 현대 삶'이란 주제로 김기갑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회가 명진관 A103에서 있고 '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란 테마로 답사 및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에게 던지는 ‘포스트 노무현’의 화두



저자: 김대호
펴낸곳: 동국대학교 출판부 한길음·더
332쪽 / 14,000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밤새워 울던 이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노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울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었다. 채 그 놀라움과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노무현 이후”라니, 책을

닫힌 이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통찰’의 필요성 역설 실패했지만 ‘성공’한 노무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명암

집어 들고는 얼마쯤은 쓰악했다. 그러나 책을 덮을 즈음에는 왜 저자가 서둘러 이 책을 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노무현 이후”라는 책의 제목은 ‘경계로서의 노무현’을 암시하고 있다. 과거가 되어버린 노무현의 가치와 한계 혹은 오류를 평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글에서 풍기는 강한 논조 만큼이나 서러움과 아쉬움이 배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주먹을 불끈 쥐던 대통령 후보 노무현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였다. 대통령이 된 후로도 그는 지속적으로 정치문화의 변화를 한국 정치발전의 키워드로 삼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사회 “하부구조들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와 한다. 일상의 삶들이 그 하부구조와 연동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진단하는 저자는 노무현도 잘 몰랐던 복잡한 대한민국이 지닌 수면 아래의 문

제들을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아마도 그에게 노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이 아쉬운 까닭은 그렇게 많은 통계 자료들을 노 대통령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던 기회가 사라져 버린 탓이리라.

이 책에서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찾고 제시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진보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것을 자각하고, 치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한 사람이었다.” 그 새로운 길의 모색은 도둑이 몽둥이로 주인을 때리는 적반하장격의 검찰수사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다고 저자는 아쉬워한다.

이 책의 초반부는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진다. 저자는 평가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참여정부가 처해 있던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에 관해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다. 시대의 어둠을 보아야 노무현의 가치, 그의 한계와 오류가 보이기 때문이

다. 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껏 진보와 보수는 닫힌 이념적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패러다임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그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본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가 자신의 이념으로 서로에게 삿대질 하지 말고 함께 한국사회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풀이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글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길을 찾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천의 얼굴을 가진 한국사회에 대한 바른 통찰입니다. 현재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은 상당부분 정치계와 지식사회의 한국 사회에 대한 피상적이고 분절적인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 안에서 저자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경쟁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의미하는 공정함과, 경쟁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을 의미하는 공평함”의 구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분

을 통해 저자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그와 함께 한국 사회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고,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진영의 프레임인 ‘신자유주의’, ‘양극화’ 모델의 허점을 지적한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작은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세상이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어리석고 야비하게 보일 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만이 정치에의 소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정치적 소명을 지니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를 노무현은 가까이 감내했다.

떠나간 바보를 위해 남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기억뿐이다. 죽음에 대한 의식(儀式)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기억의 가치와 내용을 시민들이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성찰함으로써 기억은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가 된다.

이 책 “노무현 이후”는 그렇게 기억과 미래를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플랫폼을 함께 찾아 가려는 사람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다.

박학
대학원 정치학과 강사



故 김대중 대통령 추모 특집 - 관련 서적을 통해 본 그의 사상과 철학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저자소개-

1925년 전라남도의 섬 하의도에서 태어나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1954년 정치에 입문, 제 5·6·7·8·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야당 정치활동을 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상대후보였던 박정희에게 근소한 차로 패배한 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망명한 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등을 결성하여 언론과 교포사회를 통해 유신반대 민주화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1973년에 일본에서 납치되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가택연금 조치 속에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선 후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황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구명운동으로 1981년 1월 23일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1982년에 형

집행이 정지되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1985년 당국의 반대와 암살 걱정을 무릅쓰고 귀국하였지만 결국 공항에서 격리되어 또 다시 가택에 연금됐다.

1993년에 영국으로 출국하여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후 아시아 태평양 민주지도자회의를 설립했고, 1995년 정계에 복귀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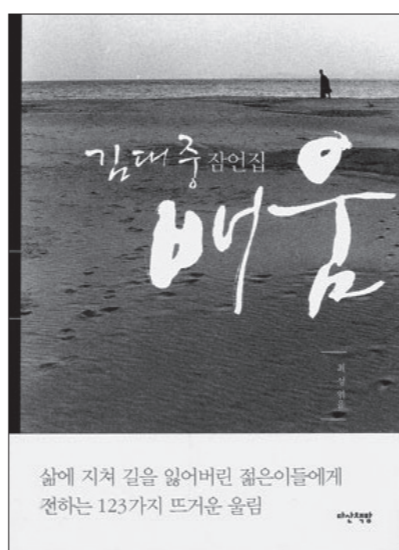
1997년 12월 3전 4기의 도전 끝에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하며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의 임기를 마쳤다. 2000년 평양을 방문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냉전과정에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에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81년에는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오스트리아), 1987년에는 조지 미나 인권상(미국)을 받는 등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대중참여경제론』, 『옥중서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김대중 전집』 등이 있고, 그 밖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펴낸 10여종의 저서가 있다. 그는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6년을 감옥에서 지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망명과 연금 생활로 보냈다.

파란만장한 정치 생활을 뒤로 하고 2009년 폐에 염증성 반응이 있는 급성호흡부전증후군(ARDS)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8월 18일 끝내 서거했다.



김대중 집안집 배움
편자: 최성
펴낸곳: 다산책방(212쪽 / 9,800원)

책소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안집이다. 일생 동안 ‘무엇이 될까보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했던 사람. 생명의 위협에도 극심한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 서기를 주저하지 않던 사람. 스스로 생의 고통부터 환희까지 몸소 겪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했기에 그가 남긴 집안집들은 뜨겁고 희망적이다.

인생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의해 완성되기 마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안집은 그 하나의 명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 나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에 관한 인생길의 네 가지 이정표를 제시한다.

책속에서

약해도 강한 참된 용기: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하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용기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강하다.

모두 용서받아야 할 대상: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남에 대한 증오와 사악한 마음, 남의 불행을 바라는 심정들을 품는다.

또 때로는 남이 모르는 가운데 나쁜 짓도 한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 어떤 자선이나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용서는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성공의 조건이다. 그러나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그 죄악과 나쁜 제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의미: 인생이 소중함 이유는 그것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나 잘 살아야 한다. 나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까이 인생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고 싶다. 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향한 행위: 우리 주변에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단순하다 해도 배려와 마음 씬씀이 없이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꽃을 가꾸고 새를 돌보는 일이 그러하다. 참으로 단순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몰라도 꾸준히 지속하려면, 진정 그 일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 행위가 생명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저자: 김대중
펴낸곳: 김영사(343쪽 / 12,000원)

책소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최초의 자전적 저서이다. 40년 동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4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다. 1993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인간 김대중의 삶과 진실, 눈물과 용기의 진솔한 기록을 담고 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전해 온다.

전직 대통령이 이전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인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그가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어 쓴 글에는 그의 열정과 젊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삶을 지키고 지탱해온 가치와 생각들을 담았기에 그가 한

어떤 연설이나 대담, 글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전해 준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한 평생을 살아온 그의 이야기는 고난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힘을 줄 것이다.

책속에서

과거에는 내놓고 말하기를 주저했던 것이나, 감추었던 사실들도 솔직하게 이 책에 털어놓았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나 분노, 희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바칩니다!-서문

인생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도전과 응전의 승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전에 끝까지 응전해 나가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p.7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강합니다.

--- p.69

현대 정치의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앞질러 갈 수도 없고, 국민에게 뒤쳐져서 낙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땀방울은 실패할 땀방울입니다.

국민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달려간 역사상의 그 어떤 독재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p.172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로스쿨의 명암



최성호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졸업자들에게 법학전문교육을 시켜 법조인의 전문성·다양성을 제고하고, 오직 사법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인생을 허비하는 고시생인을 없애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한 우리의 로스쿨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 유수의 로스쿨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와 대학 등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던 분들은 반대론자들을 반개혁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전문 법조인은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 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09년 3월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로스쿨을 졸업하면 저절로 우수한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다. 또한 정부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법학 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마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호언장담을 해왔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장담인가, 아니면 환상에 불과한가.

로스쿨 = 법과대학 + 고시학원 ?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대학 3년간 법학교육, 2년간의 추가 학습, 치열한 경쟁시험, 사법연수원 2년간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과하여야 법조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3년 안에 마치라고 한다면 3년간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졸업후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대학처럼 이론 교육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로스쿨들의 신입생들에게 대부분 헌법, 민법, 형법을 위주로 하루 6~8시간씩, 4~5주 가량의 특별과외를 진행하고 있는 실상에서 다양한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법조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은 고사하고 단기간의 시험 준비로 합격률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이렇다간 로스쿨이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대학과 고시학원의 문제점만을 합쳐 놓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실험적 로스쿨도입은 성공할 것인가?

단적으로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전공별, 지역별, 출신대학별 분포가 나오면서 로스쿨 인력배정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지방 로스쿨의 경우 70% 이상이 서울 소재 대학의 졸업생들로 채워졌다. 법률서비스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지역별 인구나 경제규모, 학교별 교육능력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학생 수를 배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 대 서울”이라는 이분법적 균형론에 따라 학생 수를 적당히 안배한 결과이다. 서울의 학생이 지방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러한 식의 인력배정이 지역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더구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총원수에 묶여있는 현행 제도에 하에서는 편입만으로 결원을 충원하여야 하고, 이러한 편입은 결국 열악한 지방 로스쿨을 수도권 로스쿨의 결원보충소로 전락케 하여 지역할당에 의한 로스쿨운영은 실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로스쿨탈락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우리 대학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이라고 하면서도 금번 로스쿨선정에서 탈락함으로써 동국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격분하는 동국가족도 있었다. 본인도 법대를 졸업한 동국인으로서 이를 재음미 해보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무척이나 고민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로스쿨의 태생적인 위법한 지속행정이 다행히도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에비인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항소심에서 로스쿨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되어 희망을 가져본다. 한편으로는 우리대학이 로스쿨의 도입목적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행할 만한 준비는 충분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고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작금에 발생하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고, 앞으로 새로이 우리가 로스쿨의 인가를 받는다면 100년 전통에 부합하는 로스쿨을 만들어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동문칼럼

김현영
행정 88졸 독립기념관 사무처

되새겨보는 광복절의 의미

독립기념관에 몸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광복절을 맞는 의미는 남다르다. 독립기념관은 연간 120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념시설로 요즘 같은 여름방학에는 가족단위 방문이 많다. 직원들은 3.1절, 어린이날과 더불어 광복절이 가장 바쁜 날인데 직장 설립일인 광복절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특색이다.

최근 독립기념관은 관람무료화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 전시내용의 전면적인 교체로 예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관람객 중에는 대학생 연령층의 젊은이들의 방문이 많지 않다. 초중고생 때 한번이상 와 봤기 때문에 더 볼 것이 없다고들 한다. 학생들은 수행여행 코스로 놀이공원엔 원하는데 학교에서 독립기념관을 포함시키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수행여행 온 학교 중에는

주차장에서 선생님이 몇 시에 떠날 예정이니 그때까지 주차장으로 오라는 지시만 하고 학생들만 들여보내는 모습을 가끔 목격한다. 학생들은 전시관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설명도 못 듣고 장난만 치다 짧은 시간에 맞춰 버스에 오르곤 한다. 이후 독립기념관에 가자고 하면 가겠다고 한다. 무엇을 보고 왔는지는 기억에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관심의 부족이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광복의 의미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들려주자. 국민실문조사 결과 광복절하면 생각나는 1순위가 안타깝게도 “공휴일”이라고 한다. 훗날 아이들의 가슴속에 우리는 무얼 남겨주고 가야하나? 일제강점기 같은 고초와 나라 없는 설움에 압박받던 우리 동포들의 광복을 향한 애끓는 절규를 노래한 심훈의 쇠구절을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령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 칠 그날아...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빠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순한이 남오리까...

그토록 기뻐던 광복의 환희를 경험해 본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광복절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전 국민의 90%가 넘는다고 한다. 광복절이 아니면 어떤가? 주말이나 방학 때 선열들의 독립을 위한 외침과 뜨거운 가슴을 한번 느껴보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 손잡고 독립기념관에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학생칼럼

현영민
몽골봉사단 '반디' 한국학생대표

한국·몽골이 하나되는 봉사

작년에 이어 우리대학 몽골봉사단 2기 '반디' 봉사팀이 지난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국참사람봉사단 주관,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 및 몽골 드림센터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정봉사'(교류, 협력봉사)의 원칙을 통해 작년에 이어 지역과 어우러진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기존의 해외봉사는 단체 혹은 지역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봉사자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봉사였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동국참사람봉사단의 몽골 해외봉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참가자 모두가 기획·준비하였고, 몽골 현지대학생 '모노드림 청년회'와 함께 총 40명(양국20명씩)이 1:1 교류봉사를 하였다.

봉사 프로그램은 53번 학교의 개보수를 통하여 1개 교실의 바닥, 창문, 책꽂이 등을 직접 제작하였고, 마을주민 200명과 함께한 문화공연과 바야줄구르 드림센터 내·외부 보수 공사 및 꾸미기와 마을 환경정화를 하였다.

특히 이번 봉사단은 사육병원 장애우 16명과 함께 반디캠프를 진행하였다. 365일 병원에서만 생활하는 이 장애우들은 혼자서는 걷기도 먹기도 힘든 아이들이었다. 한국인 반디1명, 몽골대학생1명, 장애친구1명 등 3명이 한조가 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였다. 명찰을 만들면서 서로 이름도 알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콩주머니 던지기, 원반 멀리 날리기 등의 운동을 통해 평소 정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크게 웃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와 함께한 아이는 7세의 너밍에르센이었다. 걷지도 못하는 에르센은 한쪽팔로만 휠체어를 사용하였다. 말도 통하지 않아서 표정과 행동으로만 교감을 했던 나와 에르센.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 있기를 싫어하는 에르센을 위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아이가 원하는 바를 들어 주었다. 그리고 에르센을 비롯하여 수면제가 없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몇 있었고, 나는 수면제를 못 먹는 에

르센을 위해 약을 뺀아서 음료수에 넣어 먹이기도 했다.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면제 없이 잠을 못자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준비에서부터 행사진행까지 장애우 아이들이 조금의 불편함 없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반디단원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다. 캠프가 끝나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지만 곧 헤어진다的事实을 눈치 채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장애우 친구들을 뒤로하면서 다들 눈시울이 붉어져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다. 단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을 배웠다.

봉사를 시작할 땐 '한국과는 다른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말도 통하지 않는 몽골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어디에서나 봉사하고자,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반디 단원들 모두에게 인생의 turning-point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독/자/투/고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자유로운 주제로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전화 | 2260-3491~2, 010-6560-7927 e-mail : yshero21@dongguk.edu

사·진·에·세·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이날의 주인공은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사람, 사람들

존 리스 교수, 의생명공학과 석좌교수 임명

제자인 김소연 교수와 국제공동연구 진행



미국 코넬대 존 리스(John T. Lis)교수가 지난 10월 11일, 본관 5층 교무위원회실에서 박정국 바이오시스템 대학 학장(총장 직 무대행)으로부터 우리대학 석좌교수 임명장을 받았다. 존 리스 교수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코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분자생물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존 리스 교수는 지난 해 'Cell', 'Nature', 'Science' 등 과학 전문지에 5편의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대학 외국인 교원으로 초빙된 존 리스 교수는

의생명공학과 김소연 교수와 사제지간으로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어 현재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존 리스 교수는 “동국대학교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국대학교의 석좌교수로서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압타미 연구 교수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에 유치하여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리스 석좌교수는 초빙 기념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강연회는 ‘기초분자생물학을 넘어서 신약개발 및 바이오기술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 viva5@dongguk.edu

강호덕 교수 UNCCD 연구 수주 받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연구 계속 진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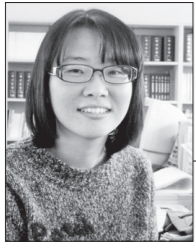
환경생태공학과 강호덕 교수가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서 주최한 사막화 방지 연구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막화 방지 연구는 매년 2억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막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막화방지 기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설치된 기관은 강호덕 교수가 있는 우리학교 연구소가 유일하다. 강호덕 교수는 몽골을 가로지르는 나무심기 운동인 그린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등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해왔다. 또한 2002년부터 중국 녹지화를 위해 바람을 막아주고 사막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포플러를 개발해서 중국에 보급하는 연구에도 참여했다.

강호덕 교수는 “이번 수주를 기회로 한국에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포플러를 몽골에도 이전시키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호덕 교수는 관련 사업을 규격화하고 산림산업에 기여하고 지구촌 사막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로> miro@dongguk.edu



본문
조민경
등록금넷 간사

등록금 상한제 병행 필요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취업 후 상환제’) 도입 발표 이후,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거 학자금 대출보다 진전된 제도를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정부가 생색내는 것처럼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혹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가 ‘반값등록금’의 공약을 이 제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의 ‘취업 후 상환제’는 고액의 등록금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개선한 대책일 뿐, 고액 등록금 문제 자체를 해결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취업 후 상환제’ 도입에 있어서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의 고액 등록금과 해마다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지 않으면,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액이 높은데, 그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되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부담이 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 없는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킨 것에 불과한 제도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서도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한 ‘취업 후 상환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취업 후 상환제’는 정부가 출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적절한 금액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교육 현장을 ‘시장’으로 여기고,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현 정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규제’는 ‘절대 불가’라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대학 자율화를 운운하며 상한제는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국민들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는 지 의문이다. ‘시장의 원리’만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말이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장을 강조하는 현 정책 아래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은 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학들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자녀 배려로 함께해야

정부는 9월 말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잘 정착화 되길 바란다. 그 때까지 최대한 ‘취업 후 상환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던 450만원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주던 105만원의 무상장학금과 거치기

간에 진행하던 이자 지원을 없애겠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만들어질 공간이 크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중산층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 후퇴와 함께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잡고, 고금리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결혼 및 주택 마련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주는 정책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정책 진정성 확보위해서라도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취업 후 상환제’를 고민한 것이라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의 문제, 고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 저소득층 지원 후퇴 문제 등 또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봉책’으로 생색 내기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임을 인지해야 한다.

사설

민주주의의 큰 별이 지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 시대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이처럼 故 김 전 대통령은 격동의 대한민국 정치사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가치를 상징했다. 고인의 인생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였고, 고인을 빼놓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인의 부재는 더 이상 이 사회에 ‘한 시대의 상징’, ‘민주주의의 상징’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인은 군사정권시절 박정희 정권에 맞서다가 일본에서 납치돼 헌해탄에 수장될 뻔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다가 사형선고, 투옥 6년, 망명 10년, 가택연금 55차례 등 숱한 고초를 겪었다. 6·10 민주항쟁 이후 10년 만인 97년, 대권 도전 4수만에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한민국 헌정사 첫 번째 수정정권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차적 완성이란 평을 받을만했다.

또한 고인은 인권투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약 30년간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온갖 박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권보호를 위해 저항하며 ‘인동초’라는 별칭을 얻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기도 했다.

민족화합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다. 대통령 당선 후 평소 고인의 지론이었던 햇볕정책을 펼쳤고,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일궈냈다. 노벨상 위원회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남북화해 정책에 대한 고인의 공로를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은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계속됐다. 평생을 고스란히 바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전례 없는 위기로 치달으면서 고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대중 앞으로 돌아왔다. 대중 앞에서 고인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자고 말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국민들을 일깨웠다.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되돌아보게 된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남북, 민주와 반민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고인이 자신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여준 화합의 정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만평



백선아 기자 littleche@dongguk.edu



메아리
정웅재 편집장
wonder@dongguk.edu

88만원세대식 사랑법

▲88만원 세대에게는 사랑도 사치다. 3만원 더 나온 전화요금에 평범한 누나 동생 사이로 전락한 커플. 데이트 비용을 시간 당 몇 천원으로 계산하며 전전긍긍하는 커플. 취업준비, 고시준비를 위해 연인과 결별하는 세대. 이것이 오늘날의 20대, 88만원 세대다. 이는 얼마 전 한 잡지의 커버스토리로 보도된 내용이다. ‘사랑은 88만원보다 비싸다’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는 현재 20대들이 숨 막히는 현실로 인해 마음껏 사랑할 수조차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도하고 있다.

▲‘88만원 세대’라는 용어는 지난 2007년 출간된 동일한 제목의 도서에서 비롯됐다. 치열한 경쟁사회에 내몰려 인간적인 여유마저 누릴 수 없는 20대를 가리켜 저자는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1000유로 세대’라는 책에서 본 따 이 세대의 이름을 지었다. 여기서 88만원의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

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수치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고작 88만원 밖에 벌 수 없는 20대의 슬픈 현실이다. 사랑은 커녕,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찰 뿐이다. 그들에게 사랑은 생존의 문제이다.

▲88만원 세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의 대다수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길어봐야 그 유효 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 노동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데, 20대가 자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노동의 유연화는 언제나 일시적이기에, 연애와 사랑, 가족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인간 사이의 친밀성과 유대감 같은 감정과는 맞지 않는 노동의 형식이다. 때문에 연애와 결혼의 전제 조건에 사랑이 우선되지 않

고 경제적인 조건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지배하게 됐다. 또한 최근 초식남·건어물녀 등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버린 사랑의 유형,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386세대와 그 뒤 세대들은 그들의 청춘을 회상하며 ‘혼란스러웠지만 낭만이 있던 시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88만원세대는 20년 뒤, 자신의 청춘을 이렇게 회상할 것이다.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던 시절’이라고. 어릴 적부터 같은 세대끼리 연대가 아닌 치열한 배틀 로열을 벌이는 세대. 사회에 나와선 자신보다 우위에 서 있는 윗세대와 경쟁하며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싸우는 세대. 사랑과 낭만을 알지못한채 냉혹한 경쟁을 벌이는 88만원 세대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가 낳은 비극이며, 현실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일 뿐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2009학년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2009년 8월24일(월) ⇒ 9월11일(금) (3주간)

*등록금 납입 영수증 분실자는 전입신고 시 확인가능
*등록금 분할납부/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연대본부에서 확인서 작성 후 전입신고 가능함

2. 신고 대상
가.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나. 2009년도 편입생, 입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 / 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 2009년도에 전역한 학생은 2010년도에 전입신고

3. 신고 장소
학생서비스팀 예비군 연대본부 (본관 3층)

4. 신고 시 지참물
가.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임명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
나. 등록금 납입 영수증 (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5. 기타 상세 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2260-3047~8)
*휴학기간 중 '09년도 전반기 지역에서 부과된 훈련미필자는 신고 시에 필히 훈련결과를 실무자에게 통보바람.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 면학분위기에 기여함은 물론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장

금주의 식단

동 국 관		상 록 원	
월 (8/24)	방중휴무	월 (8/24)	육계장(2500)/날치알술밥(2500)/해물덮밥(2200)
화 (8/25)	방중휴무	화 (8/25)	치킨골소스덮밥(2200)/샤브갈국수(2500)/참치김치찌개(2500)
수 (8/26)	방중휴무	수 (8/26)	돈육치즈볶음(2200)/만두전골(2500)/오징어덮밥(2200)
목 (8/27)	돈삼겹두루치기(2200)/닭불고기술밥(2500)	목 (8/27)	쇠고기당면덮밥(2200)/부대찌개(2500)/산채비빔밥(2200)
금 (8/28)	김치볶음밥(2200)/된장찌개(2500)	금 (8/28)	김치볶음밥(2200)/된장찌개(2500)

고유식의 NewYork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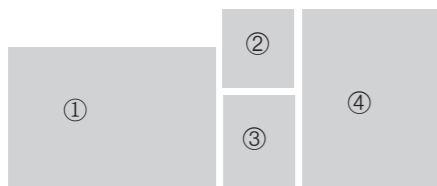


뉴욕, 이곳은 꼭 둘러보라

맨하튼에서 센트럴 파크를 가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월드콘 끝부분의 초콜렛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감동이 밀려와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정도였으니까요. 불거리는 물론이고 도시 안에서 지쳐있던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면 당연히 소호 거리를 걸어야 할 것이고, 빈티지 느낌을 찾고 싶다면 지하철을 타고 맨하튼을 벗어나 브룩클린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바다냄새를 맡고 싶다면 코니 아일랜드를 추천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해변을 갈 수 있다는 큰 매력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①센트럴파크 ②비내리는 뉴욕거리 ③타임스퀘어의 다양한 인종, 화려한 색



①뉴욕 촬영여행을 함께한 카메라들 ②브루클린 다리아래 다정히 키스하는 연인과 얼굴을 가린 노점상 ③타임스퀘어의 명물 네이키드 카우보이 ④노를 지는 뉴욕 거리 한복판 한움큼의 노를 쥐고 길을 건너는 사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방학동안 해외여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볼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생각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경우, 뉴욕에서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던 시카고에 거주하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비행기 표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은 꿈에서 시작되고

사실 한 학기 남은 시기가 부담되는 편이 있었지만, 약속을 지킨다는 구실로 뉴욕을 밟아볼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저의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뉴욕을 간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왜 유럽을 안가고 뉴욕을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진을 시작한지 6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전 뉴욕에서 저의 감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저만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왔는데, 이것이 뉴욕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하는 제 스스로의 시험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고건축물보다 현대적인 느낌을 소화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해외여행의 경험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의 프로모션에 참가한 경우였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 어느 곳의 후원도 없이 저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 숙소까지 도착해야하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영어라도 잘한다면 걱정이 좀 덜했을텐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전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각종 상황에 대비한 내용

들을 문서로 만들어 프린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종이만 있으면 난 숙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꺼야'란 믿음으로 인천 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행에서 담고자 했던 것

뉴욕하면 무엇이 떠오르나구요? 전 그동안 재미있게 봐왔던 미국 드라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즐겨보는가십걸의 무대가 바로 뉴욕이었기 때문에 TV로 보았던 배경을 직접 가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행의 컨셉은 바로 사진여행!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가이드북에 실린 사진처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나의 사진을 통해 뉴욕을 낯설게 바라보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여행 내내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뉴욕의 첫 느낌? 영화세트장!

맨하튼 거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의 느낌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마치 영화 세트장 안에 서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광고판과 직선의 건물, 가로 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도시의 풍경은 영화 촬영을 위해 제작한 세트장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을 처리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 하나 놓치지 아까운 풍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보물이 지천에 널려 있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DSLR 카메라 3대와 동영상 촬영용 서브 카메라까지 총 4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던 이유를 아시겠죠? 렌즈를 갈아 끼우는 시간도 아까웠기 때문에 카메라가 각각 망원, 광각, 표준 줌을 연결하여 렌즈 교환 없이 정신없이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옆을 지나가던 어느 미국인 아주머니는 손가락으로 제 카메라를 가리키며 자신의 아이에게 "원,투,쓰리,포"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4일간의 여행을 통해 뉴욕은 "다양성의 도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이란 단순히 많은 종류의 것들이 널려 있다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으로 해석되는 도시

타임스퀘어 광장을 걸을 때에는 '아마도 맨하튼 안에 세계의 대부분의 인종이 모두 모여 있지 않을까' 과장된 물음까지 떠오를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시내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빈부의 극과 극이 그 어느 곳보다 뚜렷하게 구별되는 도시, 거리의 예술과 사치의 예술이 동시에 인정을 받는 도시, 가장 모던한 빌딩과 100년도 넘는 고딕 양식의 성당이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있는 도시가 바로 뉴욕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뉴욕으로

오게 만드는 매력일 것입니다.

아마도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여행 책을 꼽는다면 그것은 분명 뉴욕 여행 책자일 것입니다. 제가 머문 숙소에서만 뉴욕 가이드북을 10권 이상 봤으니, 한 도시를 이만큼 다양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책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은 바로 패션과 쇼핑입니다. 뉴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듯이 현지에서 느낀 뉴욕은 패션의 도시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뉴욕의 여름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거리 공연을 어느 곳이나 마주칠 수 있고, 지하철에서는 힙합, 재즈, 클래식, 댄스에 심지어 마술공연까지 열리니 곳곳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또 뉴욕이었습니다.

화려함만큼 짙은 도시의 그늘

국제적인 관광의 도시 속에서 그곳의 삶을 즐길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대부분 땅을 향하고 있었고, 때로는 눈을 가리며 자신의 삶을 통제해왔습니다. 도시 대부분의 3D 직종에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계산대나 식당에서 백인이 일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것이 자본주의 속에 현대판 노예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고유식 (문과대 사학과 4)

